

농어촌공사 강릉지사 청년농 소통간담회... 어려움 청취

✎ 황선우 | ⓒ 승인 2025.03.13 | □ 12면

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(지사장 이형섭)는 최근 지사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7명이 참석했다. 간담회에서는 청년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에 대해 청취하고, 청년 농업인 농지 지원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. 또 농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.

강릉지사는 농지은행의 '맞춤형 농지 지원사업' 및 '농지 임대 수탁사업'을 통해 지난해 296 농가에 98ha를 지원하고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 또 올해부터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 사업, 비축 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 농지 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.

이형섭 지사장은 "강릉지사는 청년 농업인들이 꿈을 키우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"라며 "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청년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"고 말했다. 황선우



황선우 woo6745@kado.net